

하프시코드의 올바른 보관법

이 힌트들은 하프시코드를 오랜기간 건강하고 즐겁게 보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:

- 하프시코드는 직광에 놓아두지 마십시오.
- 하프시코드 보관에 가장 적절한 습도는 50%-70% 사이이고, 가장 적절한 온도 범위는 15° C - 25° C 입니다. 보통 악기 박물관에서의 악기 보존 습도는 50%이고 온도는 20° C 입니다.
- 악기의 간단한 구조와 발음원리를 배워두세요.
- 하프시코드를 항상 제 음정에 맞도록 신경 써 주세요. 4'를 가진 악기라면 그것도 포함해서 입니다. 조율은 억지로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전자조율기를 사용하면 확실한 음을 맞출 수 있고, 스스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. 평균율로 조율하는 것을 피해주세요. 평균율로 꼭 조율을 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 없이는 평균율로 조율하지 마세요.
- 악기연습이 끝났을 때는 뚜껑을 덮어주세요.
- 깨끗한 손으로 하프시코드를 연주해 주세요. 아이들이나 손님들같은 다른 사람들이 악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
- 쇠의 부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악기 줄이나 쇠로 만든 부속품들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.
- 하프시코드 연습시에 사용하는 연필을 집어들 때나 놓을 때 적합한 장소를 찾아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연필의 심으로 하프시코드의 여기저기에 낙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.
-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서 먼지를 제거해주세요. 특히나 공업지대 근처에 살거나, 애완동물이 있거나 침실에 하프시코드를 보관한다면 더 신경써서 청소해주세요.
- 하프시코드 제작자나 테크니션의 조언으로 작은 공구박스과 여러분의 부속품을 가까이 두게 되면 항상 최고의 상태와 최신의 부속물들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.
- 어떠한 조정이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인지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, 여러분은 끊어진 악기 줄이나 부러진 킨(quill)을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.
- 부러진 부속품(분실한 키커버, 잭, 끊어진 줄의 튜닝핀)을 악기 멀리 두지 마세요. 잘못 끼워지거나 잃어버리기 쉽습니다.
- 하프시코드를 운반용 두터운 커버없이 절대 옮기지 마세요.
- 절대로 하프시코드를 해가 비치는 곳의 차 안에 두지 마세요: 온도는 금세 50° C 정도로 올라가고 습도는 10% 미만이 되어버립니다.
- 특별히 전문연주가로 악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보험을 확인하세요.

번역: 주현정

©2010 CBH